

제주시 불법증축 봐주기 의혹... 소방은 방조

산후조리원에 이행강제금 3년 동안 부과치 않아 도감사무위원회 "적발 뒤 통보 해놓고 별 조치 없어"

제주시내 한 대형 산후조리원 건물이 불법으로 증축된 사실이 밝혀졌지만 행정이 3년 동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아 '봐주기 의혹'이 제기 (본보 7월 5일자 5면)된 가운데 소방 당국도 이를 방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무위원회는 26일 '2019년도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16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제주 소방이 추진한 조직운영, 예산집행 등 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감사 결과 제주소방이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통해 적발한 건축·전기·가스 분야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의 조치가 미흡한데도 이행하도록 독려하는 등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됐다. 또 위반사항을 통보받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이 조치 결과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았음에도 별

다른 조치없이 묵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제주시내 자연녹지에 들어선 A산후조리원이 4층 건물을 불법증축, 사실상 5층 건물로 운영하다 2015년 12월 제주시로부터 20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추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야 했지만, 제주시는 2016년과 2017년, 2018년까지 부과하지 않아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감사위는 "화재안전특별조사 이후 행정에서 어떤 조치가 이뤄지는 지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주소방에 통보했다"며 "아울러 현재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번 감사를 통해 제주소방이 징계처분자 및 휴직자 19명에게 1099만원을 과다 지급하고 승진심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인사업무 담당자를 포함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위는 시정·주의·통보 등 31건의 행정상 조치와 1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2685만원 회수 조치 등을 요구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46일 동안 불법체류자 133명 검거

제주경찰, 지난달부터 외국인 강력범죄 특별치안

외국인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46일 만에 100명이 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46일간 '외국인 강력범죄 대응 특별치안활동'을 실시한 결과 113명의 중국인 불법체류자를 검거해 강제출국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들을 불법 고용한 업주 및 알선책 14명도 검거, 이중 5명(업주 1명·알선책 4명)을 구속했다.

이번 단속 기간 투입된 인원은

2500여명이며, 매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누에모루거리와 제주시청·삼무공원·이중섭거리 일대 등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단속은 흥기 소지가 의심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외국인에 대해 검문·검색을 실시해 불법체류 등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면 검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검문·검색에 불응해 도주하는 불법체류자가 속출, 추격전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한 불법체류자 집단거주지에 대한 단속도 이뤄졌는데, 제주시 애월읍 단독주택에서 30명, 연동에서 8명, 대정읍 6명 등이 잇따라 검거됐다.

송은범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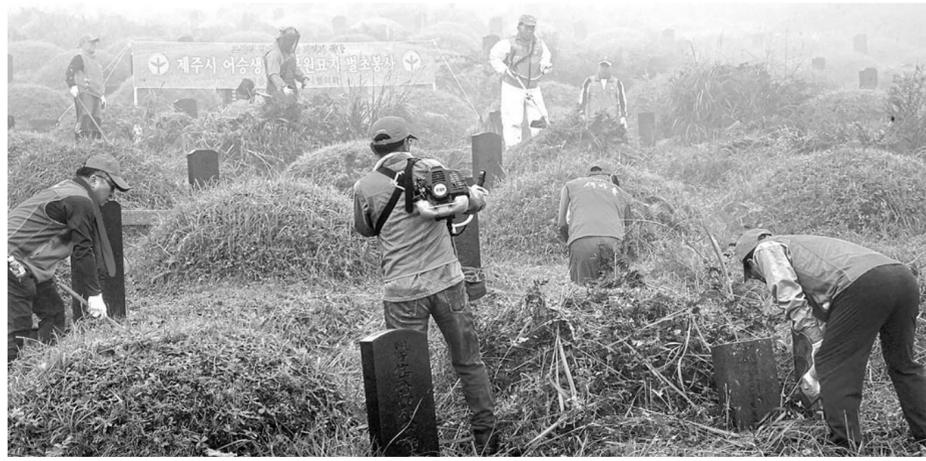
서울도민회 갈등 봉합 25일 회칙개정안 합의

회장단 선거인단 구성 등 회칙 개정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어온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회장 신현기)가 화합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26일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에 따르면 신현기 현 회장 장남 장단 측 10여 명은 전날 도민회에서 회의를 열고 회장단 선거인단 구성과 관련 현 회장단에 역대 회장단까지 확대하는 회칙 개정안에 의견을 모았다. 지역회장단은 당초 제시했던 회장단 구성에 직능직과 지역회장수의 균형을 맞추는 안은 차기 회장단에 그 논의를 미루기로 했다.

서울제주도민회는 이 같은 합의안에 대해 27일 회장단 회의, 다음 달 10일 대의원 임시총회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부미현기자



무연분묘 벌초 봉사활동 26일 제주시 어승생 공원묘지에서 제주시세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안창준)와 제주시세마을회(회장 김창기), 세마을지도자 200여명이 무연분묘 벌초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공소시효 만료 수배자 5년간 8000여건

'돈 때먹고 잠수' 한 지명수배자 61% 처벌 못해 강창일 의원 "관리·검거시스템 대책 마련 시급"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는 지명수배자 건수가 최근 5년간 8000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 수사기관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갑·행안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명수배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받지 않는 지명수배 건수는 총 8282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명수배자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재가 불명인 범죄자를 말한다. 그런데 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의 경우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또한 강 의원은 분석한 지명수배자 현황을 보면, 최종별로는 사기·횡령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된 지명수배자가 절반 이상(61%)을 차지해 소위 '돈을 때먹고 잠수'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강창일 의원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는 지명수배자가 연평균 1000건이 넘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서민을 울리는 사기·횡령이 많아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경찰의 수배자 관리 및 검거시스템이 더 촘촘하게 이뤄지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부미현기자

제주 동네조폭 80% 전과 11범 이상

검거된 403명 모두 '재범' 40대 41%... 무전취직 최대

제주에서 지역주민이나 상권을 대상으로 상습폭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동네조폭' 10명 중 8명 가까이는 전과 11범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제주에서 총 403명의 동네조폭이 검거됐다. 이중 전과 21~50범이 163명(40.4%)으로 가장 많았고, 11~20범

134명(33.2%), 6~10범 59명(14.6%) 등의 순이었다. 51범 이상도 24명에 달했지만, 조범인 경우는 1명도 없었다. 범죄 유형별(중복)로 보면 무전취직이 494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업무방해 296건, 폭력 186건, 재물손괴 115건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 169명, 50대 131명, 30대 71명, 60세 이상 25명 등이었다.

전국에서 동네조폭이 가장 많이 검거된 곳은 서울 8025명, 경기 4348명, 부산 2792명이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뇌물수수 前 공기업 제주지사장 '중형'

LNG사업 한국가스기술공사 관사 매입 빌미 2억원 수수 법원, 징역9년 벌금·추징금

제주에 들어서는 관사를 빌미로 건설업자에게 수억원을 받은 전 제주 LNG 사업 관련 공기업 임원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한국가스기술공사 제주LNG 지사장 명모(57)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명씨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자 이모(53)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명씨는 제주LNG지사장이던 지난해 10월 제주시 연동의 한 아파트

150세대를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 숙소로 분양받는 것을 빌미로 이씨에게 현금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해당 아파트의 실질적 건축주다.

당시 명씨는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이 제주에 대거 온다는 점을 내세워 관사로 이씨가 건축 중인 아파트를 사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내부 감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명씨에 대해선 보직을 해임했다.

재판부는 "명씨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거해 처벌해야 한다. 또 거액의 돈을 요구했고 개인 채무에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씨는 명씨의 요구에 따라 돈을 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진정한 휴식의 보약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한번의 시비로 - 밑비료+추비+농약+병해예방(친환경)
뿌리혹병, 잡초경감, 균핵병, 회색곰팡이병, 흑색썩음균핵병, 역병, 모잘룩병, 시들음병, 달팽이사멸, 각따귀, 날파리류, 곰팡이병살균, 방제

페르카의 제반효과 비료대(평) 100-500원

- 잡초의 경감
- 오랜 기간 지속되는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 높은 저장성
- 페르카
-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 강력한 라이프효과
- 뿌리혹병의 경감

사용 기준 25K - 1포 (100~500평)사용
취급 품목 4종복비, 유기질비료(친환경제품), 1등급가공발효계분퇴비, 유황비료
관주 염면 시비용 맥반석, 게르마늄, 황금수, 자옥산

밭, 과수, 골프장, 목초지, 전작물 사용 농경비 30% 절감 + α
연작장애, 토양소독, 석회투입 NO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 제주은행
시외버스터미널 오라파출입
한라체육관
실내수영장

대표 임장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전세 렌터카

2018. 12. 17. 제23회 소비자의날 대한민국 소비자만족도 평가 대상 수상

4년동안 타던 차를 반납하면

전세보증금처럼 새차 탈때 낸 금액을 100% 돌려 받는 새로운 렌터카 서비스
당신의 자산과 가치를 지켜주는 카테크의 시작 전세렌터카로 같이타세요!

차고지증명제가 필요없습니다

똑같은 자동차 타는 방식으로 자산을 지키세요!

개인, 법인 사업자 경비 처리됨

매월 관리비와 기름값으로 품용선 차량을 탈 수 있다.
주행거리 제한 없는 상품
우리가족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다. 고객의 신용상태 상관없이 이용가능
무료정비서비스는 S정비업체 사고처리는 S화재
4년마다 원하는 신모텔 차량을 순환으로 탈 수 있다.
4년 뒤 보증금 100% 환불

이전 자동차는 소유가 아니라
편리하고 경제적인 사용의 개념으로 보셔야 함.

내가 원하는 국내 수입차 전차종 가능...

- 세금 부담
- 정비 부담
- 보험 부담
- 주행거리 제한
- S보험사
- 정비 보험
- 양보업체
- 자금부족

국제로렌터카 WONCAR CTS매니저 박종욱
010-9104-4742